

스포츠

# 럭비부, 천적 고려대 꺾고 트로피 들었다

대통령기우승

박지혜 객원기자 snaier91@khu.ac.kr

쫓박 14년만이였다. 럭비부가 지난 22일 ‘제26회 대통령기 전국 중별 럭비 선수권대회(대통령기)’ 결승전에서 고려대를 34-20으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2011년 이후로 최근 4년간 고려대를 상대로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둔 적이 없기에 더욱 뜻 깊은 우승이었다.

특히 대통령기 우승은 럭비부 박용돈(체육학 1999) 코치가 재학 중이던 2001년이 마지막 이었다. 코치로서 처음으로 우승한 박용돈 코치는 “모교에 코치로 부임한 지 3년 만에 거머쥔 첫 우승이어서 더욱 기쁘다”라며 “다음 대회인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대학부에는 ‘2015 코리안럭비리그’ 1차전에서 상위성적을 거둔 4팀(고려대, 경희대, 단국대, 연세대)가 참가하기로 결정됐으나, 단국대가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세 팀만 참가했다. 우리 학교는 부전승으로 결승에 직행해 연세대를 이기고 올라온 고려대를 상대하게 됐다. 고려대는 명실상부 현 대학 럭비 최강자로서 2015년 들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다. 고려대와의 경기는 지난 4월 11일 ‘2015 코리안 럭비리그’ 1차전에서 26-34로 석패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경기 시작은 순조로웠다. 전반 5분 주장 한상훈(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의 페널티킥 성공으로 선취점을 낸 데 이어 10분에는 트라이까지 성공시키며 8:0으로 앞서갔다. 그러나 잇따라 고려대에게 트라이와 페널티킥을 내주며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다. 재역전의 기회를 틈틈이 노렸으나 촉박한 시간 탓에 결국 8-15로 전반전을 마무리했다.

경희의 드라마는 후반전부터였다. 초반 고려대 김승선이 10분간 퇴장을 당하며 수적으로 유리해진 상황이었다. 여세를 몰아 전반 9분 허재준(스포츠지도학 2013) 선수와 전반 19분 박명우(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가 연달아 트라이를 성공, 20-15를 만들며 역전에 성공했다.

포워드와 백스의 호흡이 특히 눈에 띄었다. 지난 2015 코리안 럭비리그에서 다소 맞지 않는 호흡을 보이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었다. 포워드의 픽앤고(Pick and Go) 전략이 적중했고, 힘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았다. 백스의 활약 또한 그에 뒤지



\* 럭비의 득점

- 트라이 : 상대방 골라인 바깥쪽까지 공을 갖고 가서 바닥에 찍는 것, 5점
- 컨버전 골 : 트라이 성공 시 추가 킥 기회가 생긴다. 이 때 공을 차서 득점하는 것, 2점
- 드롭 골 : 경기 중 공을 차서 득점하는 것, 3점
- 페널티 골 : 상대팀이 반칙을 하면 반칙당한 위치에서 공을 차서 득점하는 것, 3점



지 않았다. 평소 고려대 백스의 스피드에 맥을 못 추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20-20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던 경기 중반, 우리 학교 인 골(In goal) 코앞까지 돌파를 허용하며 자칫 역전을 당할 뻔한 상황에서 한상훈과 교체되어 들어온 한동훈(스포츠지도학 2013) 선수가 몸을 날린 강력한 태클로 득점을 저지했다. 가히 이날의 최고 명장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트라이 세이빙 태클(Try saving tackles)이었다.

이후 이진용(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와 허준수(스포츠지도학 2013) 선수가 연속해서 성공시킨 트라이와 컨버전킥으로 14점을 더 보태며 최종 점수 34-20으로 우승의 축포를 쏘아올렸다. 럭비부는 짧은 휴식을 가진 뒤 일본 류가사키로 전지훈련을 떠나 일본 유통경제대학 럭비부와 연습 경기를 가지는 등 10월에 있을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준비에 매진할 예정이다. 이하 한상훈 주장과의 일문일답.

- 우승을 축하드린다. 어떤 마음으로 결승전에 임했나?

“결승을 앞두고 훈련이 유독 더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고려대보다 많이 밀리는 걸 알고 있었니까 그 차이를 어떻게든 좁히기 위해 훈련과 노력을 몇 배로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긴장을 많이 했는데 한편으론 엔돌핀 때문인지 묘한 흥분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우승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작하기 직전 선수들에게 ‘미친게처럼 뛰어다니자’라고 했다.(웃음) 이 날은 말 그대로 재미있게 경기를 뛰었다. 선수들 모두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뿌듯하기도 했고, 이번 대회에선 단합이 정말 잘 됐다. 서로간의 믿음과 단합이 우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것 같다.”

- 고려대에게 승리한 것이 4년만이다. 주장으로서 감회가 더 남다를 것 같은데.

“고등학생 때는 우승도 많이 경험했었는

데, 입학한 후에는 연세대와 고려대에 번번이 패배해서 우승한 적이 없었다. 나뿐 아니라 동기들 모두 졸업하기 전에 두 학교에 승리하는 것이 작은 소망 같은 것이었다.

경기가 끝나고 우승이 확정됐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또 주장 직을 맡게 된 때 승리를 거두게 돼서 기쁨이 더욱 크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 선수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힘든 운동을 불평 한마디 없이 나를 믿고 잘 따라와줘서 정말 고마운 마음뿐이다. 어느덧 주장을 맡게 된 지도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많이 서투르다고 생각한다. 남은 임기 동안 더 좋은 주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조만간 일본으로 전지훈련을 떠난다. 열심히 담금질하고 돌아와 10월에 있을 전국체전 때는 더 놀라게 해드릴 것이다.

## 2015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총 11개 메달 획득

우리학교 출전선수 메달 결과

장연수 기자 ys0501994@khu.ac.kr

지난 14일 막을 내린 제28회 ‘2015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에서 우리학교 선수들이 금메달 4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개 등 총 11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국제대학 스포츠 연맹이 주관하는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대학생 종합 운동경기대회로,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43개 국가에서 1만 3,000여 명이 참가했다.

우리학교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낸 종목은 단연 태권도였다. 단체전에서 금메달 4개, 개인전에서 은메달 2개를 얻었다. 특히 품새 종목에 출전한 선수들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지은(태권도학 2012) 선수는 여자 단체 품새에서, 장세훈(태권도학 2009) 선수는 남자 단체 품새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이재희(태권도학 2012) 선수는 혼성 단체 품새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김현승(태권도학 2013) 선수는 태권도 경기의 마지막 날인 지난 13일에 나이지리아와의 경기에서 남자 단체 겨루기 종목 금메달을 거뒀다.

2016 KBO 신인드래프트에서 한화의 1차 지명을 받은 김주현(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가 참가한 야구는 준결승에서 대만과 붙었지만 2:0으로 아쉽게 동메달을 얻는 것에서 그쳤다. 그러나 양궁과 기계체조에서는 각각 기보배 선수와 양학선 선수와 합심하여 단체전 은메달을 거머쥔 데 성공했다. 강채영(스포츠지도학 2015) 선수는 양궁 여자 단체전에서, 조영광(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는 기계체조 남자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강 선수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아쉽다”며 “곧 있을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더 좋은 성적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니버시아드 경기 일정이 거의 막바지였던 13일, 대한민국 남자 축구 팀이 이탈리아를 상대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우리학교 선수들이 우리나라의 종합우승에 크게 기여했다.

메달	이름
금(4)	김현승 이재희 최지은 장세훈
은(6)	강채영 고승범 김빛나 류대환 유현지 조영광
동(1)	김주현



한 박자 빠른 소식을 원한다면  
각종 뉴스의 링크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기자들의 취재단상이 궁금하다면  
제보하고 싶은데 어디다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일의 날씨와 같은 소소한 정보까지 얻어가고 싶다면

주저말고 지금,

대학주보와 친구가 되어 주세요  
SNS에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khunews@khu.ac.kr



http://media.khu.ac.kr/khunews